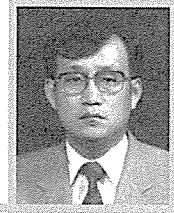


‘정보기술 사관학교’

세우자



성균관대학교/교수 정진욱

국가 경영 제일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 답은 당연히 국가안보다.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국가 경영의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 의미가 상실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효율적인 국가방위와 전투력의 최대화를 위해 많은 병력을 훈련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국방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수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일관된 명령체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투력 최대화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휘자다. 지휘자의 능력에 따라 똑같은 병력이 발휘할 수 있는 전투력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군 지휘자의 양성을 위해 국가비용으로 각 군에 사관학교를 두고 있으며 철저한 교육을 통해 양성된 훌륭한 사관들은 군

대의 각종 지휘자의 역할을 맡아 대한민국 국방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제 21세기가 정보사회·인터넷사회·디지털사회가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21세기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정보기술로 무장하고 선진제국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 우리가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야흐로 정보기술이 국가안보에 버금가는 중요한 국가목표가 되는 셈이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사이버 코리아21’을 입안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이버 코리아21 계획에는 우리나라 국민을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국민이 되도록 하려는 목표가 포함돼 있다.

모든 국민이 정보화된 전쟁터에서 컴퓨터라는 기본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병이 되게 함으로써 21세기의 전지구적인 정보화 전쟁에서 승리하여 세계 일류국가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와 함께 이들 사병을 잘 이끌어갈 정보화 지도자·지휘자가 필요하다. 물론 Cyber Korea 21계획에도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인력양성계획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세기에 세계최고의 국가가

될 수 없다. 세계최고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구촌 모든 나라에서 쓰는 컴퓨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최고의 회사가 되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듯이 우리 나라가 세계최대의 컴퓨터 생산·수출국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정보기술 사관학교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기술 사관학교를 통하여 정예화 된 정보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우리 나라 국민을 지휘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를 세계에서 최고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국가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 사관학교는 일반 사관학교와 똑같은 체제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면 된다. 국가비용으로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여 엄격한 생활통제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기술은 물론 영어·기술경영 관련과목 등의 교육을 통해 졸업 후에는 정보기술 각 분야에서 지도자 또는 지휘자의 역할을 맡아 이들이 세계최고의 정보기술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초를 닦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졸업 후 일정기간 필요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이 국가안보에 버금가는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사관학교를 만들어 우리 나라 정보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사관을 양성할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